젠슨 황에 요동친 세계 증시… AI 랠리의 '불안한 민낯'

엔비디아 시총 하루새 1조弗 육박
서학개미 안도에 공매도 세력 비명
시장 환호에도 지배구조 비판 여전
빅테크 설비투자 축소 가능성 제기
경쟁사 추격에 수출통제까지 부담
전문가들 "본격적인 회복은 일러"


24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복귀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뉴시스

"솔직히 시장이 한 사람에게 이토록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에디슨 비지카 크리덴트자산운용 최고투자책임자, 23일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

"황의 복귀는 주식시장을 구했다. 하지만 길게 보면 그의 복귀는 여러 면에서 좋지 않다." (제임스 매킨토시 월스트리트저널 칼럼니스트, 23일 칼럼)

월가는 허를 찔렸다. 투매장 이후 대응 시나리오를 논의하며 일요일 밤 5시간 동안 화상 회의를 했던 비지카는 "의자에서 굴러떨어질 뻔했다"며 월요일 개장 불과 몇 분 전 들려온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 복귀 소식의 놀라움을 이렇게 표현했다. 실제 23일(현지시간) 뉴욕·유럽 증시가 급등했다. 24일에는 코스피·닛케이225 등 아시아 증시가 '황의 마법'에 급등했다.

다른 시장 참여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뉴욕시간으로 23일 오전 9시 중국 스파이 의심 인물과의 스캔들로 11일간 물러나 있던 '인공지능(AI) 대부'는 다시 자리로 돌아왔고 AI 인프라 구축 관련주에 대한 월가의 불을 다시 지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황 CEO의 등판이 AI 버블 논란에 빠진 전 세계 증시를 단번에 구할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전 세계 증시 '엔비디아 랠리'

황 CEO의 복귀를 두고 월가의 판단은 명확했다. AI에 의존하는 현재의 주식시장에서는 한 사람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23일(현지시간) 엔비디아는 전 거래일보다 31.48% 오른 165.05달러에 장을 마쳤다. 시가총액이 약 9500억달러(약 1280조원) 불어나며 역사상 최대 일일 시총 증가 기록을 세웠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6.5% 올랐고, S&P500지수는 7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끊었다.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도 안도했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세이브로)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은 황 CEO를 둘러싼 논란이 처음 불거진 직후인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엔비디아 주식 7억54만달러(약 943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엔비디아 보관금액은 106억5801만달러(20일 기준)다. 같은 기간 미국 반도체지수 일일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인 SOXL은 19억2167만달러(약 2조5880억원)어치가 순매수돼 1위에 올랐다.

아시아 시장에서도 환호성이 터졌다. 24일 코스피 지수는 6.32% 오른 5006.03에 마감하며 단숨에 '5천피'(코스피지수 5000)에 올라섰다. 일본 기술주 중심의 닛케이225지수는 3.91% 오른 58644.63에 마감했다. 토픽스지수도 2.47% 올랐다. 일본의 대표 반도체 기업 키옥시아 주가는 장중 10% 넘게 급등했다. 대만 자취안지수는 8.99% 폭등한 40122.35에 마감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는 가격 제한 폭인 10% 급등해 2230대만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엔비디아도 더는 믿을 수 없다"며 엔비디아 주가 하락의 3배를 좇는 상품을 사들인 개미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엔비디아 주가 하락에 3배로 베팅하는 영국 상장 인버스 레버리지 ETF 두 종목은 미국 증시가 문을 열자마자 약 92% 폭락하며 거래가 정지됐다.

공매도에 나선 투자자도 경악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리면 이익, 오르면 손실이 난다. 금융데이터업체 오르텍스에 따르면, 이날 엔비디아 공매도 세력의 평가 손실은 약 122억달러(약 16조원)다. 장중 주가 168.5달러를 기준으로 계산한 값이다. 오르텍스가 집계한 2019년 이후 하루 손실로는 가장 크다.

◆"변수 여전·회복엔 시간"

WSJ는 이날 '젠슨은 돌아왔다. 그러나 AI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칼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엔비디아 이사회의 그림자 의장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황이 사실상 해임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엔비디아의 이사회와 기업 행동 강령은 무의미해졌다고 지적했다.

WSJ는 황 CEO가 엔비디아 고객사 관계자 및 회사 임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에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채 복귀한 것은 기업 윤리와 자본주의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 이후 황의 복귀가 결정되면서 엔비디아가 중국에 첨단 반도체를 공급한 경위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강도 높은 조사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투자자들이 새로운 자금조달에 점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진단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산운용 펀드매니저의 절반 이상은 향후 6개월 안에 빅테크 기업 중 한 곳이 설비투자를 줄일 것으로 예상했다. 엔비디아가 미국 AI 생태계에 자금을 공급하는 '순환금융' 역할을 할 순 있겠지만 외부 투자자들이 데이터센터 구축에 수조 달러 규모의 자금을 계속 투자할 것인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AMD와 브로드컴, 알파벳, 심지어 아마존과도 경쟁을 벌이는 점도 리스크로 꼽았다. 미국 민주·공화 양당의 대중국 강경파 의원들이 엔비디아와 황 CEO에 대한 조사를 계속 추진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미국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들의 비판도 거세다. 'CEO들의 조언자'로 알려진 제프리 소넨펠드 예일대 교수는 엔비디아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이사회는 전원 사퇴해야 한다. 한 명도 빠짐없이"라며 "기업 지배구조의 완전한 실패"라고 규정했다.

글로벌 증시가 다시 타오를 것인가. 전문가들은 "시장 불안이 완화됐지만,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 조언한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당장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밝혔다. 문준호·정승호 삼성증권 연구원도 반도체 수출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엔비디아 회계 관련 조사 역시 중장기 위험 요인으로 부상했다고 지적했다.

/김아영 기자 aykim@metroseoul.co.kr

반도체株 다시 달릴까… 외국인 수급·AI 투자 지속성 관건

美 반도체 PBR 6월 대비 53% 하락
삼전닉스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 상향
자금조달 부담에 고점 회복 신중론

"자고 일어나니 젠슨 황이 복귀했다길래 계좌를 열어봤더니 미장은 꽤 회복했더라고요. 국장은 기대만큼 안 올랐지만 본전까지 희망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자인 한모씨(41)는 엔비디아의 급반등에 손실 회복 기대를 내비쳤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복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까지 매수세가 번졌지만, 반도체주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증권가에서는 실적 대비 저평가론과 함께 메모리 가격과 AI 투자 여건을 더 확인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KB증권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 업종의 12개월 선행 주가순자산비율(PBR)은 4.6배로 나타났다. 지난 6월 9.7배보다 53% 낮다. 반면 선행 자기자본이익률(ROE)은 32.7%에서 37.2%로 상승했다. 수익성 전망이 높아지는 동안 주가에 반영된 평가 수준은 낮아진 것이다.

김세환 KB증권 연구원은 "주가 하락은 경영진 공백의 영향이 컸던 만큼, 이번 반등은 할인 요인의 제거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과거 하락기와 달리 이번에는 이익 전망이 개선되고 있다며 "10월과 11월의 주가 급락은 수요 둔화가 아니라 투자 지속성에 대한 의심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국내 기업의 이익 전망도 상향되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는 최근 3개월 동안 각각 12.9%, 18.9% 높아졌다. 이 연구원은 리더십 공백과 공급·투자 약정의 이행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주가 할인을 키웠다고 진단했다.

장밋빛 이익전망이 곧 반등의 공식은 아니다.

이 연구원은 "관건은 외국인이다"라면서 "외국인 반도체 매도세가 진정되고 AI 투자가 유지된다면 메모리 대형주를 시작으로 AI 서버용 기판과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전력기기 등으로 반등이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도체주가 랠리를 펼치려면 AI 투자 재원과 수익성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황수욱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황 CEO의 복귀가 엔비디아의 자본 공급 의지에 대한 우려를 줄였지만, 산업 전체에 필요한 자본의 공급 능력을 개선한 것은 아니라"고 짚었다. 황 연구원은 주가지수가 단기 저점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서도 이번 급등에 숏커버 성격이 짙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주식시장만큼 신용시장이 낙관적이지 않았다며, 추세 상승을 위해 신용시장 정상화와 AI 설비투자 축소 우려 해소, 수익화 가속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엔비디아 이사회의 독립조사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회계처리 조사, 다음 달 초 의회 조사도 복병이다. 대중국 수출 통제와 미국 데이터센터 인허가 지연, 내년 빅테크의 설비투자 방향 역시 반도체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AI 붕괴 우려는 완화되겠으나 반도체주가 고점을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세환 연구원은 단기 변동성 가능성을 짚으면서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하방보다 상방 여지가 크다"고 평가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李 대통령 "주주 중심으로 증시 재편"… 자본시장 개혁 속도 주문

대주주 경영권 남용·기업 저평가 지적
주식시장 급변동에 대응책 마련 주문
개혁 TF에 민간 전문가 영입 제안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주식시장이 주주 중심으로 재편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금융당국에 자본시장 개혁에 강도와 속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또 최근 주식시장의 급변동이 계속되는 데 대해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이 대통령은 "주가가 어제 떨어졌다가 오늘 폭등하고, 널뛰기 같다. 조정이 급격하게 이뤄지다 보니 널뛰지 않느냐"면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 주주 중심 재편을 언급하며 "물론 경영진도 주주다. 그런데 대개 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 소수의 대주주가 너무 경영권을 남용하거나 주주 이익에 반하거나, 이런 일이 여전히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개혁 태스크포스(TF) 현황 등을 점검하며 "경영진도 주주고, 대주주도 주주지만, 시장에 공개된 회사의 경우 대개 지분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느냐. 소수의 대주주가 경영권을 남용하거나 주주 이익에 반하거나 이런 일들이 여전히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PER(주가수익비율)이나 PBR(주가순자산비율)이 너무 낮은데도 그걸 방치하는 걸 넘어 조장하는 행위는 진짜 문제 아니냐"라고 짚었다.

또 "'다른 나라에 비해 이 정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제도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다른 나라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좋은 제도를 우리가 도입하고 있는지 아직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때까진 추격하는 나라였다면 이제 선도하는 나라로 우리가 위상을 바꾸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기대들이 커지고 있다"면서 "모든 분야에서 전례 없는, 선진적인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개혁에 속도를 내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한편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제도 개선 과제를 전면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TF 책임자에 역량 있는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좀 챙겨봐 달라.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